

현장코디네이터 역할 재정립·역량 강화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내실화 유도해야

서울 전역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현장코디네이터의 수요·역할 증대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공공주도의 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현장활동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전역 총 160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이 중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4단계에 걸쳐 37개소가 지정되어 현장코디네이터의 수요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에 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제도적인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현장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시행 초기 단계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과 현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므로 서울시 재생정책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수요에 적합한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코디네이터 역할, 법제도는 광범위한 제시... 현장센터에선 권한 미흡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지원조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등 현행 법·제도에서는 현장코디네이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지향해야 할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장코디네이터들의 상당수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체성과 활동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공동체 부문 위주로 인식하고 있어 행정과 주민이 요구하는 역할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서 행정이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권한을 갖고 있으며, 현장센터는 용역방식으로 운영되어 권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 요구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행정과 현장센터, 현장센터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코디네이터의 다양한 교육수요·교육체계 간 간극 발생

현행 코디네이터 대상 교육은 제도적으로 지원이 미흡하여 교육참여율이 높지 않고, 교육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코디네이터들은 장기간 집체식 교육보다는 개인 수준별·사업단계별·담당업무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코디네이터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센터는 중급코디네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방식도 집체식 강의, 찾아가는 교육, 멘토링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 예산, 전문강사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장의 수요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장센터 권한 불명확... 현장코디네이터는 처우문제 등으로 직업 비전 낮아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지원형은 현장센터를 용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장코디네이터에게 기본적인 처우(4대 보험 포함)를 보장하고, 행정 주도의 사업구조 아래에서 일정 부분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방식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계획수립과 공동체 부문 간의 연계성이 약화 될 우려가 있고, 용역계약으로 인해 현장코디네이터의 고용계약이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현장센터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현장코디네이터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처우 문제, 낮은 코디네이터의 위상,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직업적 비전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양성된 인력이 다른 직종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별 특성·수요 고려해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중심 추진체계 강화할 필요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별로 특수성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사업의 제한적인 기간과 예산으로 인하여 거점공간 또는 앵커시설 설치나 주민소모임, 주민협의체 등 공동체 활성화 활동과 같은 유사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과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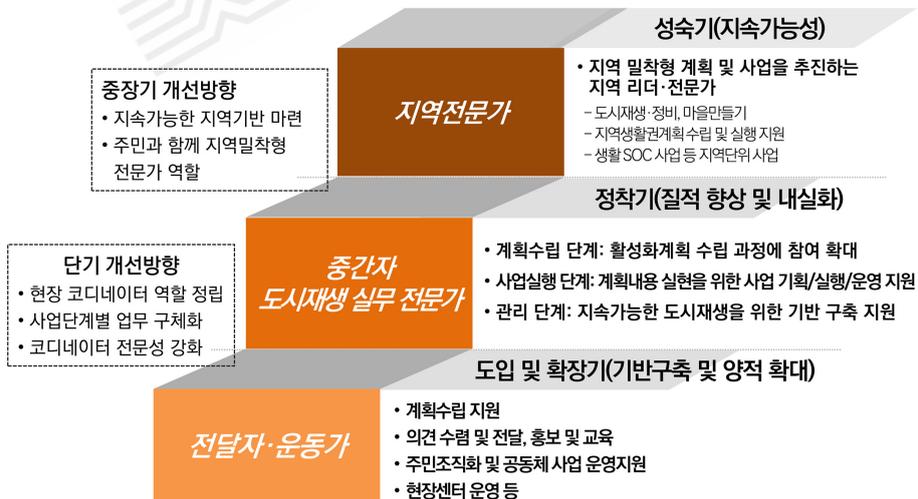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현장센터가 센터의 운영, 소규모 공동체 사업 등에 대해 권한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정책 방향 설정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자치구는 지역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 주체로서 현장센터를 지원하고 재생활성화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실무전문가, 지역전문가로서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 재정립 필요

현장코디네이터는 현장에서 주민 스스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에 전달하고 상호의견을 조율하는 중간자이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활성화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계획수립과정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부문과 활성화계획 수립 부문을 연계하여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및 조율을 바탕으로 한 계획과제 도출, 주민공모사업 및 연계사업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업실행단계에서는 활성화계획과 정합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현장의 가교역할을 하고,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실행 지원,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 앵커시설 등 운영 주체 발굴, 다양한 정보제공 등을 수행한다. 공공재정사업 종료 이후 자력재생단계에서는 주민조직 운영, 거점 공간 및 앵커시설 운영 등에 관한 지원 및 자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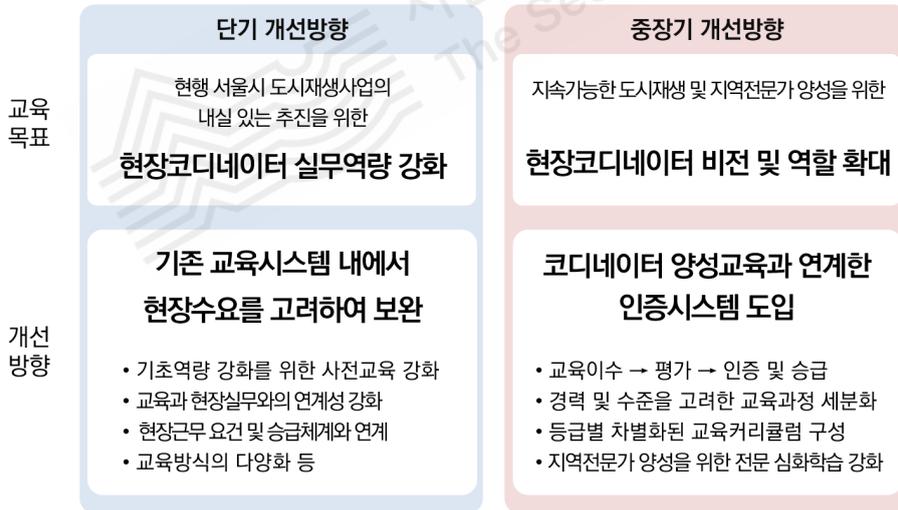


[그림 1]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 정립

중·장기적으로는 현장코디네이터가 지역 단위의 다양한 주민참여형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전문가 역할을 맡아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 이외에도 생활권계획,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주민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역 단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계획과 사업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역전문가의 필요성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전문직업으로서 현장코디네이터의 비전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넘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주민참여형 계획 및 사업의 주요한 추진 주체로서 역할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역량 키우도록’ 교육기능 고도화, 장·단기 로드맵 마련

현재 광역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은 입문자 과정인 사전교육,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1단계 교육, 기존 활동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심화 과정인 2단계 교육으로 구성된 3단계 체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행 교육시스템과 앞서 제시한 현장코디네이터의 단계별 역할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개선안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중장기 교육로드맵을 제안하였다.



[그림 2] 현장코디네이터 교육시스템 개선방향

단기 개선방향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현재 활동 중인 현장 코디네이터의 도시재생사업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교육시스템을 토대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 등 현장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 현장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한다.

중장기 개선방향은 현장코디네이터의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비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다양한 계획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지역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코디네이터 교육과 연계한 인증 및 승급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코디네이터의 역량과 직업적 비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 실무역량 키우게 교육체계 정비… 교육접근성 높이게 교육방식 다양화

단기적으로 정기교육은 현행 사전-1단계(초급)-2단계(중급) 교육체계의 틀 안에서 교육 과정과 시기를 정례화하고, 현장코디네이터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전교육의 위상과 실효성을 높이고, 1단계 교육은 초급코디네이터의 실무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다. 2단계 교육은 도시재생 관련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연계하고, 현장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며, 온라인 강의를 도입하고 세미나·특강을 개최하는 등 교육방식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 또한 현장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역센터가 교육 및 정보 관제센터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장기: ‘도시재생전문가로 키우는’ 코디네이터 인증제 도입 등 로드맵 수립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축적된 우수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여 서울시와 지역 차원의 인적자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계획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인증시스템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한다. 코디네이터 중장기 로드맵은 크게 ‘코디네이터 준비과정’과 ‘도시재생 현장코디네이터’ 과정으로 구분하고, 기존 3단계에서 5단계 과정으로 세분화한다. 코디네이터 준비과정은 입문교육과 수습코디네이터 양성교육으로 구성하여, 도시재생 및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이해하고 현장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 현장코디네이터 과정은 도시재생 실무전문가로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단위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계획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등급별

코디네이터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 현행 코디네이터 등급체계를 고려하여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구분하고, 승급을 위해서는 과정별 이론강의 및 실습교육 이수 후 평가를 거쳐 자격을 인증한다. 인증된 코디네이터에게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지역 단위의 주민참여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업적으로 안정성을 갖도록 유도한다.

현장코디네이터 역할 재정립, 교육시스템 체계화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조례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향후 교육코디네이터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단계로 정책 및 현장의 수요를 추정하여 단계별로 필요한 코디네이터 인력 수요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 인증제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조례에 반영하고, 세부사항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별도의 ‘서울시 코디네이터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에 대한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지원형 활성화지역은 현장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동체 부문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계획 부문으로 용역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센터의 권한 미흡, 현장코디네이터의 위상 저하와 고용불안, 공동체 부문과 계획수립 부문의 연계성 저하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2019년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치구 단위의 기초센터를 비영리 법인형태로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현장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향후 과제로 검토한다.

향후 광역센터는 다양한 이력과 경력을 보유한 은퇴 전문가, 지역주민, 청년 등을 지역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로드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장·단기 교육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강사풀을 구축하고, 교육수강생의 이력을 관리하며, 단계별 교육교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시스템화하고, 교육과정의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지원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광역센터가 교육 및 정보 관제센터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보강도 필요하다.